

남원시 국가예산확보 '총력'

지리산 산악철도 시범도입 국비 100억원 지원 등 건의

남원시(시장 이환주)가 2017년도 국가예산확보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이환주 남원시장은 12일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를 방문하여 지리산 산악철도 시범도입 등 2017년 국가예산사업에 대하여 사업의 시급성과 타당성을 설명하며 국비지원을 건의했다.

먼저 이 시장은 기획재정부를 방문하여 지리산 산악철도 시범도입(사업비 201억원)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트램제작, 부대시설설치 등에 필요한 국비 100억원 지원을 건의하였다.

현재 이 사업은 산악철도 시범도입 타당성을 검증하는 기획연구과제를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철도기술연구원)이 마무리하고 올해 시범도입(1km)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이 시장은 신(新)성장 동력 산업으로 추진하는 친환경화장품 클러스터조성사업의 마지막 단계인 코스메틱 컨버전스센터 건립사업을 위하여 국비 30억원 지원을 요구하였다.

그동안 시는 친환경화장품 클러스터 조성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1단계는 노안산업단지에 집적화단을 조성하고 2단계로 CGMP공동생산 시설을 준공했으며 3단계로 화장품 상품 및 원료개발, 유통지원 등을 위한 70억원(국비 40, 지방비 30)을 투자하여 코스메틱 컨버전스센터건립을 추진중이다.

이어서 국토교통부를 방문하여 총사업비 200억원 규모의 북남원 IC와 원도심 연결도로(교통대로)개설사업에

국비(180억원)지원을 건의했다. 이 사업은 도로 등 기반시설을 구축해서 낙후된 지역경제효과를 도모하는 지역개발사업이다.

특히 북남원 IC와 의총로 3가 구간이 8월에 개통예정인 것으로 의총로 3가와 향교동 신협, 시청로 3가를 연결하는 도로의 개설이 아주 시급함을 적극적으로 설명했다.

또한 이 시장은 생활기반시설확충, 안전한 통학로정비 등을 추진하는 도시활력증진 지역개발사업(전통을 품은 생생 향교마을조성, 36억원)과 국도 24호선, 19호선 구간의 오르막길 개선, 교차로 개선 등 평소 시민 교통 불편이 큰 9개 지구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을 추진하는 국도 병목지점 개선 사업을 관련부서에 적극 건의했다.

/남원=유영철 기자

남원시, 공약이행평가 최우수 등급 받아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전국 2300여개 기초자치단체 대상

남원시(시장 이환주)가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진행한 '민선 6기 전국 기초단체장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에서 최우수 등급(SA등급)을 받았다. 이는 민선6기 남원시정을 시작한지 2년 된 시점에서 큰 의미를 둘 수 있다.

공약이행평가는 전국 2300여개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지자체 홈페이지에 공개된 2014년 7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공약이행정보자료를 바탕으로 올해 4~6월까지 진행된 매니페스토 공약이행평가단의 평가결과를 12일 발표했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는 공정한 평가를 위해 시민사회 활동가, 교수,

전문가 등 56명으로 구성된 로컬 매니페스토 공약이행평가단을 가동했다.

공약이행평가단은 △공약이행완료 △목표달성 △주요소통 △웹 소통 △공약일치도 등 5개 분야로 나눠 평가를 했다.

평가등급은 점수에 따라 5개(SA, A, B, C, D) 등급으로 차등 부여하고, 종합평가 결과 5개 분야 합산 점수가 90 점 이상인 지자체에게는 최우수 등급인 'SA'를 부여했다.

남원시장은 2015년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우수상을 받은 후 2년 연속 시민과의 약속이행을 잘한 것으로 평가됐다.

/남원=유영철 기자

공약이행평가단은 목표달성도와 이행률도 노력해서 이환주 시장에게 높은 점수를 줬으며, 시장공약 추진상황을 자문·평가해 온 점과 시장공약 사항 조정에 대한 시민의견 수렴을 위해 시민배심원제 운영한 점도 높이 평가했다.

이환주 남원시장은 "공약사항은 시민의 약속인 만큼 인기 위주의 일시적 정책이 아니라 남원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적극적인 실천의지를 갖고 시민과 소통하면서 잘 이행하고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남원시는 민선6기 공약사항 5대분야 30개사업 중 14개 사업을 완료하고 정상추진되는 16개 사업이다.

/남원=유영철 기자

순창군, 공약이행평가 우수 'A등급' 선정

순창군(군수 황숙주)이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주관한 민선6기 전국 시군구청장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에서 우수등급인 'A등급'을 받아 군민과의 약속이행을 인정 받았다.

특히 순창군은 황숙주 군수 취임 후 2013년과 2014년 최우수 'SA' 등급, 2015년과 2016년에는 우수 'A' 등급을 받는 실적을 올렸다.

한국매니페스토운동본부와 서울신문이 주관한 이번 평가는 공약의 완료도와 주민소통을 중심으로 공약이행완료분야, 2015년 목표달성분야, 주민소통분야, 웹소통분야, 공약일치도 등을 평가하여 점수에 따

라 최고 SA등급~D등급으로 평가하고, 자세한 공약정보가 공개되지 않는 경우 불통(F등급)으로 평가했다.

순창군은 공약이행도 및 웹소통 등 정보공개 측면에서는 좋은 평가를 받았다. 실제 군은 현재 44개 공약사업 중 39개 사업을 완료하거나 정상추진하고 있다.

또, 외부환경의 변화에 따라 중저·보류된 사업도 공약의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내용을 현실에 맞게 변경 추진해 공약의 100% 이행을 위한 노력도 병행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군민의 오랜 숙원사

업인 국도 21호선 방재터널 개량사업 및 팔덕메타세쿼이아 주변 테마관광지 개발사업 등 일부 대규모, 중장기 사업이 국가예산 확보 및 주변여건의 어려움으로 시기가 지연되고 있는 것이 최고 등급을 받지 못한 요인일 것 같다"고 아쉬워 하며, "지난해 방재터널 개량사업을 최우선 추진과제로 삼고 국토교통부와 국회를 발의 닦도록 방문하는 등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했으나 최종관문에서 고배를 마신만큼 올해에 꼭 사업비를 확보할 수 있는 전방위적 노력을 함께해 공약이행률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순창=이양원 기자

고창군, 오색컬러보리 미국 7개 업체 추가 납품

(주)청맥 14톤 선적

고창군(군수 박우정)이 12일 미국에 오색컬러보리 수출을 위해 (주)청맥에서 박우정 고창군수와 업체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오색보리 14톤을 선적했다.

보리, 현미 등 잡곡을 전문 가공·유통하는 농업회사법인 (주)청맥(대표 김재주)은 지난 3월 보리, 찰현미 등 4종의 잡곡을 미국에 수출하기 시작했는데 소비자 반응이 좋아 LA의 7개 업체에 오색보리를 추가 납품키로 했다.

오색보리 등 잡곡은 지난 2015년 10월부터 약 4회에 걸쳐 26.3톤이 수출됐으며 올해 하반기 3회에 걸쳐 50톤, 내년부터는 매월 컨테이너 1박스씩 수출할 계획이다.

(주)청맥은 농촌진흥청의 '지역농업 특성화사업' 지원을 받아 보리커피, 당



료용 보리죽 등을 개발해 판매 및 CI 등 기업에 납품하고 있다.

오색컬러보리는 농촌진흥청에서 육성한 신품종 보리 5종을 분양받아 고창군의 기술지원으로 상품화해 국내 유색보리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

(주)청맥 김재주 대표는 "현지의 한인 뿐만 아니라 미국인들에게도 널리 사

람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우정 고창군수는 "지속적인 수출을 통해 농가 소득증진에 도움이 되도록 관심을 가지고 지원할 것이며 고창군 농산물의 우수성을 알리는 데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고창 고수면 벼룩시장 개최

군민 후원 생활용품·의류·가방 등 판매

고수농가농협(회장 송기수)이 지난 11일 고수면사무소 광장에서 벼룩시장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고수농가농협후원회가 주관했으며, 고수면(면장 안승현), 고수주민자치위원회(위원장 류영배), 고수이장단협의회(협의회장 이상범), 고창군새마을지회(지회장 김두호), 고창읍이장단협의회(협의회장 김호진)가 후원했다.

또 고수새마을부녀회, 고수농가주부모임, 고수생활개선회, 신기마을한글공부반, 북룡마을 조경자이장, 은사마을 유영숙 이장 등 여성 주민들도 적극적으로 행사에 참여했으며 모깃잎떡, 웰빙전유수, 호박부침개, 시원한 음료, 찰보리밥 등을 준비해 고수면을 찾아 온 방문객에게 대접하고 판매했다.

벼룩시장에서는 고수면 출신과 고수면에서 근무했던 공무원들, 고수 관내 기관단체, 강호항공고여교사 모임, 면민 등 많은 군민이 후원한 생활용품, 의류, 가방, 신

발 등을 모아 판매했다.

이날 이장별 고수노인회장이 고수농가농협 교장으로 위촉됐으며 자원봉사자로 유택수(동양화·서예 부문), 유복승(약기 연주 부문)씨를 위촉했다.

또한 지난 2014년 12월에서 시작된 고수농가농협 초창기부터 적극적으로 후원하고 지원해 준 고수농가농협 명예회장(강원주), 고수면민회(회장 정종규), 고수주민자치위원회(위원장 류영배), 고수이장단협의회(협의회장 이상범), 고수지역자율방재단(단장 배래), 고수면 내창마을 김성근 이장은 공로패를 수여받았다.

송기수 고수농가농협 후원회장은 "주변에서 병마와 씨씩하게 싸우며 열심히 살고 계신 분들과 불우이웃을 돕기 위해 소박하게 마련한 행사에 많은 분들이 찾아와 주시고, 후원해 주셔서 고맙다"며 "앞으로도 따뜻한 고수면, 함께하는 고수면을 만들기 위해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대만 남재중학교 학생들 순창방문 한국문화 체험

대만의 청소년 홈스테이단이 지난 11일부터 3일간의 일정으로 순창을 방문해 한국 청소년들과 우정을 쌓고 한국 문화와 학교생활 체험을 통한 한국 바로 알기에 나섰다.

이번에 순창을 방문한 홈스테이 방문단은 대만 까오슝시 남재중학교 교직원과 학생들로 20여명 규모다.

순창군은 2014년부터 남재중학교와 교류를 시작해 그동안 순창 홈스테이단이 대만을 2번 방문했고, 대만 홈스테이단의 한국방문은 이번이 처음이다. 방문단은 13일까지 각각 한국 청소년의 가정에서 머물며 한국의 문화를 체험하게 된다.

순창군은 2014년부터 남재중학교와 교류를 시작해 그동안 순창 홈스테이단이 대만을 2번 방문했고, 대만 홈스테이단의 한국방문은 이번이 처음이다. 방문단은 13일까지 각각 한국 청소년의 가정에서 머물며 한국의 문화를 체험하게 된다.

이번에 순창을 방문한 홈스테이 방문단은 대만 까오슝시 남재중학교 교직원과 학생들로 20여명 규모다.

순창군은 2014년부터 남재중학교와 교류를 시작해 그동안 순창 홈스테이단이 대만을 2번 방문했고, 대만 홈스테이단의 한국방문은 이번이 처음이다. 방문단은 13일까지 각각 한국 청소년의 가정에서 머물며 한국의 문화를 체험하게 된다.

순창군은 2014년부터 남재중학교와 교류를 시작해 그동안 순창 홈스테이단이 대만을 2번 방문했고, 대만 홈스테이단의 한국방문은 이번이 처음이다. 방문단은 13일까지 각각 한국 청소년의 가정에서 머물며 한국의 문화를 체험하게 된다.

순창군은 2014년부터 남재중학교와 교류를 시작해 그동안 순창 홈스테이단이 대만을 2번 방문했고, 대만 홈스테이단의 한국방문은 이번이 처음이다. 방문단은 13일까지 각각 한국 청소년의 가정에서 머물며 한국의 문화를 체험하게 된다.

순창국제화연구회 김상범 회장을 비롯한 한국 측 관계자들과 대만 측 투웨이즈 남재중학교교장을 비롯한 홈스테이 참여자 등 총 80여명이 참석해 공식 환영식이 가졌다.

황대만홈스테이단은 이번 방문으로 학교체험, 고추장만들기와 용기만들기 체험을 통해 한국의 전통 발효문화를 체험하고 한국을 보다 더 이해하는 뜻 깊은 시간을 가졌다.

또한 순창지역 청소년들이 주축이 된 '북중 락밴드' 노래, '순창초 댄스 Fairy'의 댄스 등을 선보이며, 청소년의 끼를 마음껏 표출하는 문화공연 시간도 가져 한층 유익함을 더했다.

/순창=이양원 기자

고창군, 안전신문고 홍보 볼펜·리플릿 배부

고창군(군수 박우정)이 군민의 자발적인 안전신고 활성화를 위해 '안전신문고' 홍보 볼펜과 리플릿을 제작해 배부하는 등 적극적인 안전신문고 홍보를 추진하고 있다.

'안전신문고'란 주민들이 일상생활 속 안전위험 요소를 언제, 어디서든 쉽게 신고 할 수 있도록 하고 행정기관에서는 신고된 위험요소를 신속히 정비할 수 있도록 국민안전처가 개발하여 보급한 스마트폰 앱이다.

신고대상은 도로, 신호등, 안내표지판 등 교통관련 시설 파손과 노후 응벽·측대·건축물 등 취약시설, 학교폭력·불량식품 등 기타 생활환경 전

반에 대한 신고뿐만 아니라 각종 안전에 대한 개선 의견을 제안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번에 제작된 홍보 볼펜에는 안전신문고 홈페이지(www.safeppeople.go.kr)와 일상생활과 연계해 위험요소 발견 시 쉽게 떠올릴 수 있는 문구를 삽입하여 주민들의 자발적인 안전신고를 유도하는데 중점을 뒀다.

현재, 고창군 주민 약 700여명이 안전신문고 앱을 이용하고 있으며 신호등 고장, 도로주변 위험물 방치, 자연재해 등 다양한 분야의 신고를 접수하여 처리하고 있다.

/고창=김영식 기자

순창군, 수확철 고추밭 관리지도

순창군이 수확기를 앞둔 장류원료인 고추밭 관리지도에 본격 나섰다.

순창군 농업기술센터는 현재 고추 작황은 전년 대비 조장은 2.5cm 크고 착과수는 3개가 많게 나타나 초기생육이 전반적으로 양호한 가운데 잠미철에 많이 발생하는 역병과 탄저병, 담배나방에 중점을 두고 종합방제를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7월 하순부터 수확기에 들어가는 고추는 웃거름주기 해야 중후반까지 품질과 수량을 높일 수 있으므로 고추 수확 후 허골에 복합비료(N-K)를 10a당 10kg를 뿌려 주도록 당부하고 있다.

농업기술센터 조영선 소득경영계장은 금년도 고추가격 동향은 전년도 재고량이 많이 있고 고추작황도 양호하며 민간수입량도 전년과 비슷할 것으로 전망해 600g당(1근) 7,000원 내외로 전망하고 있다고 밝혔다.

군은 장류원료의 안정적인 확보와 생산기반을 육성하기 위해 고추생산 유통 장려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278ha, 1267농가에 5억5천여만원을 지급한 바 있다.

/순창=이양원 기자

임실군, 정부 3.0 컨설팅 실시

임실군은 12일 군청 간부회의실에서 행정자치부와 공동으로 '정부 3.0 컨설팅'을 실시했다.

정부3.0 추진 4년차를 맞아 실시한 이번 컨설팅은 김재일 단군대 행정학과 교수, 신인에 한국정보화진흥원 정부3.0팀장 등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컨설팅단과 군 업무관련 담당자 등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시간에 걸쳐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상호토론을 통해 발전방안 및 보완·개선책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군 관계자는 "올해 추진하는 정부3.0과제를 군민이 공감하고 체감하는 정책으로 개발할 것"이라며, "이를 바탕으로 군민이 중심이 되는 살고 싶은 임실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3.0은 공공정보를 적극적으로 개방·공유하고 부서 간 칸막이를 없애 소통·협력함으로써 국민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시에 일자리 창출과 창조경제를 지원하는 새로운 정부운영 패러다임이다.

/임실=진홍영 기자

순창률, 교통사고 사진 전시회

순창경찰서(서장 최규운)는 주민들과 운전자들의 교통안전 의식을 일깨우고자 17일까지 순창농협근처 앞에서 교통사고 사진 전시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시회는 교통안전 캠페인의 일환으로 주민의 교통안전에 대한 의식을 전환하고 교통사고 위험성을 적극 알리고자 함이며 특히 최근 관내에서 일어난 중대교통사고 현장의 테마별로 신호위반, 음주사고, 무단횡단 등 원인별로 나눠 구성하였고, 사소한 교통안전 수칙을 지키지 않아 발생한 교통사고 현장의 모습이 생생하게 담긴 사진들을 전시했다.

최규운 서장은 "이번 교통사고 현장사진 순회전시가 군민들에게 교통사고의 위험성과 경각심을 고취시켜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좋은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고 앞으로도 교통사고를 예방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순창=이양원 기자

임실군, 다문화여성 구강보건사업

임실군은 다문화 결혼이주 여성을 대상으로 '통합건강증진 구강보건사업'을 실시해 호응을 얻고 있다.

12일, 다문화센터에서 실시한 구강보건사업은 진료비 부담과 의사소통 문제로 의료서비스 이용이 어려운 다문화 결혼이주여성 30여명을 대상으로 치과이동진료차를 활용해 검진, 보건교육, 스텝링, 불소도포 등의 체계적인 구강건강 서비스를 제공했다.

군 관계자는 "갈수록 증가하는 결혼이주여성의 건강한 치아관리 및 구강건강 향상을 위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실시하고 있다"며, "구강질환 예방과 스스로 관리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가족구성원 모두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임실=진홍영 기자